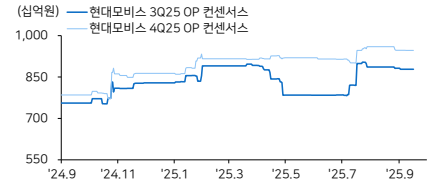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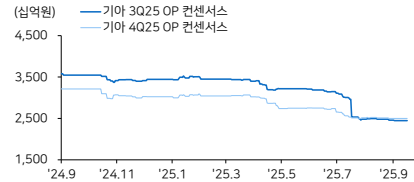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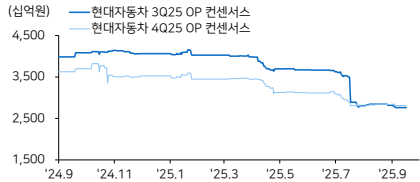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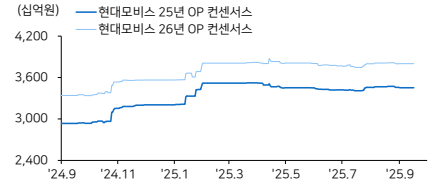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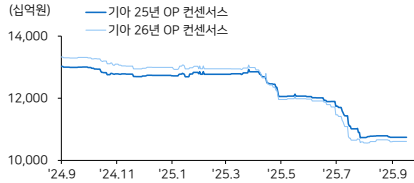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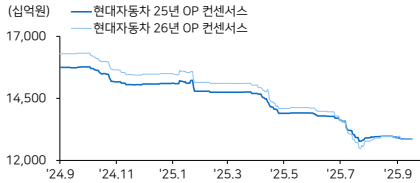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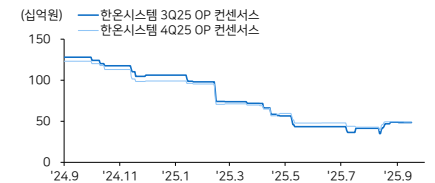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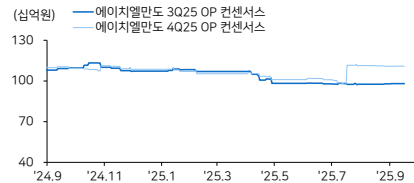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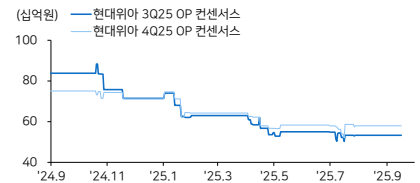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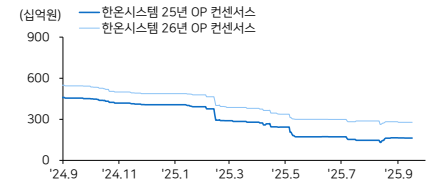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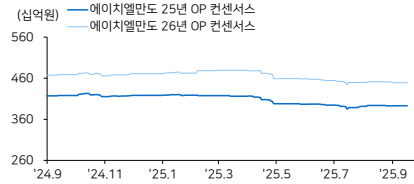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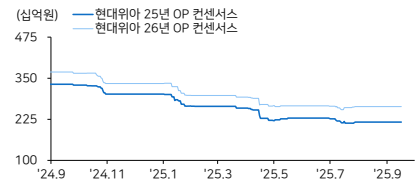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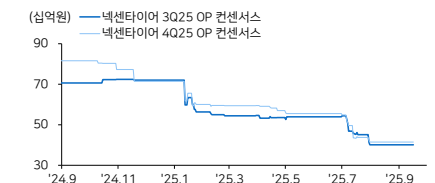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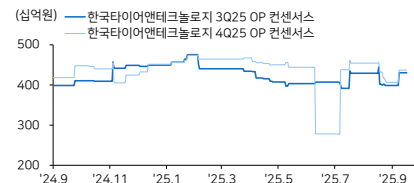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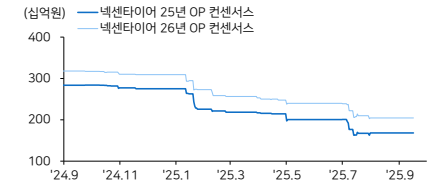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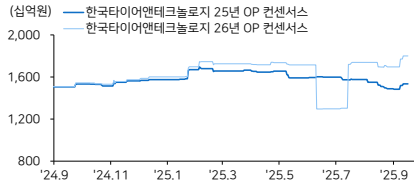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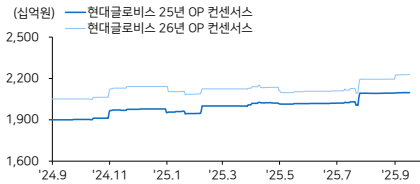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美 '車 운반선 수수료' 오늘부터 시행...현대차·기아, 관세 이어 물류비 직격탄 (쿠키뉴스)

미국 정부는 10/14 부터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톤당 최대 46달러의 임항 수수료를 부과. 당초 예정된 14달러 보다 3배 이상 높아져 한국 완성차·물류업계에 연 수백억 원대 추가 부담 안길 전망. 현대차·기아 등은 수억선 악화 우려됨
<https://han.gl/y8MqI>

테슬라의AI自動運転, 国交省「ソフト 更新で使付け可能」・日本でテスト (nikkei.com)

Tesla는 AI 기반 완전 자율주행 (F2E) 기술을 일본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 중. OTA를 통해 기존 판매 차량에 기능을 추가할 계획. 일본 국토교통성은 현행 규제 내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기존 차량에도 해당 기능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힘
<https://han.gl/rHfEX>

Tesla Autopilot visualization gets big upgrade with tons of new additions (Teslarati)

Tesla는 최근 오토파일럿 시각화 기능을 대폭 강화해 열불린스, 소빙차, 유모차, 트램 등 다양한 객체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정밀하게 표시하도록 업데이트. 이번 기능 강화로 자율주행 시 차량 주변 상황을 더욱 현실감 있고 정확하게 운전자에게 전달 가능
<https://han.gl/ub3yH>

China's car sales pick up speed in 'Golden September' (Reuters)

중국의 9월 자동차 판매는 227만대 (+6.6% YoY)로 증가, 성수기 효과와 교체보조금 수혜로 성장세 보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57.2%를 차지. BYD는 판매 감소와 생산 축소 겪었으나, 지리, 리프모터, 샤오미 등은 사상 최고 판매 달성
<https://han.gl/oQrUl>

Xpeng Aeroht rebranded as Aridge, reveals new product with range exceeding 600 km (CnEVPost)

Xpeng의 비행 자동차 부문이 (Aridge)로 리브랜딩하며, 500km 이상 주행거리를 가진 신형 비행 자동차 A868를 두바이에서 선보임. 2027년 중동 시장 진출 목표, 11월 광저우에서 공식 데뷔 예정. 저고도 비행 제품 혁신 글로벌 리더의 포부를 밝힘
<https://han.gl/3nWll>

South Korea says it flagged Hyundai US investment plan concerns (Reuters)

산업부 장관은 장관이 국회에서 현대차가 미국과의 민간한 무역 협상 중에 116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김종민 의원은 현대차가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해 협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함
<https://han.gl/8GIGm>

Tesla makes major production announcement at Giga Shanghai (Teslarati)

Tesla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3Q25 사상 최대인 497,099대의 차량을 인도한 후, 4분기 생산 확대를 발표. 중국 부사장 그 레이스 타오는 웨이보를 통해 상하이 공장이 중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객을 위해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힘
<https://han.gl/vZ5cl>

中 전기차, 국내 시장 공습... '대륙의 태슬라'도 출격 (조선비즈)

BYD에 이어 중국 전기차 업체 지커와 샤오펑이 잇따라 한국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진출을 준비중. Xpeng은 내년 1분기 준대형 전기 세단 P7 출시 추진 중. 자율주행·UAM·로봇 기술로 차별화 시도. 지커는 중형 전기 SUV 7X 출시를 유력하게 검토 중
<https://han.gl/exsQk>

Xpeng begins exporting Mona M03 sedan that contributes 40% of monthly deliveries (CnEVPost)

Xpeng은 전기 세단 모나 M03의 수출을 시작. 첫 시장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을 선택. M03는 지난해 8월까지 117,443대가 인도되며 엑스펑 전체 판매량의 43.24%를 차지하며 올해 유럽, 내년 전 세계로 모나 시리즈를 확장할 계획
<https://han.gl/TMdoO>

일렉시오' 16일 생산 개시...현대차, 中 시장 회복 노린다 (덕트레커)

현대차 중국법인 베이징현대차 중국 특화 전기 SUV '일렉시오'를 16일 첫 출고하며 사전 판매 시작. E-GMP 플랫폼 기반의 중형 SUV로, 1회 충전 시 700km 주행거리와 약 2780만원의 경쟁력 있는 가격임. 자율주행 기법 모멘타 인수도 검토 중
<https://han.gl/SodqT>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